

해상보험 실무

해운·조선·물류·수산 최고위과정 제5기

2023.5.24

CONTENTS

해상보험의 내용과 역사적 배경, 현황을 살펴보고
그 활용 방안을 생각해본다.

01
정의

02
역사

03
현황



PROFILE

권오정

삼성화재 재직중
법학박사, CPCU, ARe



- 前 해상보험파트장
- 런던사무소/유럽법인 주재원
- 해상보험부 입사(1993)

01

해상보험

- 해상보험계약의 정의
- 해상보험계약의 종류





Brainstorming

해상보험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?

#해난사고

#로이즈

#영국



#선박보험

#적하보험

#수출입무역

#현대해상

해상보험계약

- **상법 제693조 (해상보험자의 책임)**

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**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**

- **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1조(해상보험의 정의)**

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, 즉 **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**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.

01 해상/보험/계약

[해상사업과 관련된 해상위험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]



해상사업/해상위험

Marine Adventure
& Maritime Perils



손해보상

Indemnity



계약

Contract

01 해상사업과 해상위험

[해상사업 = 해상보험계약의 목적]

[해상위험 =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]

해상사업

- 일체의 선박, 화물 또는 동산이 해상위험에 노출되는 경우
- 운임 등의 사업에 따른 금전적 이익 손실
- 제3자에 대해 배상책임 발생



해상위험

- 해상고유의 위험(Perils of the seas) – 바다의 우연한 사고나 재난(황천, 침몰, 좌초, 충돌)
- 해상의 위험(Perils on the seas) – 화재, 투하, 해적, 선원의 악행 등
- 전쟁 및 동맹파업 위험
- 기타 보험증권상 기재된 일체의 위험

Top 5 risks in Marine and Shipping in 2023

Rank		Percent	2022 rank	Trend
1	Fire, explosion (화재/폭발)	29%	3 (25%)	↑
2	Changes in legislation and regulation (e.g. <i>trade wars and tariffs, economic sanctions, (제도변경-무역제재) protectionism, Euro-zone disintegration</i>)	25%	NEW	↑
2	Cyber incidents (e.g. <i>cyber crime, malware/ ransomware causing system downtime, data breaches, fines and penalties</i>)	25%	4 (23%)	↑
4	Business interruption (incl. supply chain disruption) (기업휴지-물류중단)	23%	1 (42%)	↓
4	Natural catastrophes (e.g. <i>storm, flood, earthquake, wildfire, extreme weather events</i>) (자연재해-기상이변)	23%	2 (33%)	↓

The most important business risks in 2023: global

Rank		Percent	2022 rank	Trend
1	Cyber incidents (e.g. cyber crime, malware/ransomware causing system downtime, data breaches, fines and penalties) ¹	34%	1 (44%)	↗
2	Business interruption (incl. supply chain disruption)	34%	2 (42%)	↗
3	Macroeconomic developments (e.g. inflation, deflation, monetary policies, austerity programs)	25%	10 (11%)	↑
4	Energy crisis (e.g. supply shortage/outage, price fluctuations)	22%	NEW	↑
5	Changes in legislation and regulation (e.g. trade wars and tariffs, economic sanctions, protectionism, Euro-zone disintegration) ²	19%	5 (19%)	↗
6	Natural catastrophes (e.g. storm, flood, earthquake, wildfire, extreme weather events)	19%	3 (25%)	↓
7	Climate change (e.g. physical, operational and financial risks as a result of global warming)	17%	6 (17%)	↓
8	Shortage of skilled workforce ³	14%	9 (13%)	↑
9	Fire, explosion	14%	7 (17%)	↓
10	Political risks and violence (e.g. political instability, war, terrorism, civil commotion, strikes, riots, looting)	13%	13 (9%)	↑

(Source: Allianz Global Corporate & Specialty, "Allianz Risk Barometer 2023")

Top 10 risks in South Korea in 2023

Rank		Percent	2022 rank	Trend
1	Business interruption (<i>incl. supply chain disruption</i>)	36%	1 (39%)	↗
2	Fire, explosion	32%	5 (19%)	↑
3	Cyber incidents (e.g. <i>cyber crime, malware/ransomware causing system downtime, data breaches, fines and penalties</i>)	29%	2 (33%)	↓
4	Climate change (e.g. <i>physical, operational and financial risks as a result of global warming</i>)	25%	NEW	↑
5	Natural catastrophes (e.g. <i>storm, flood, earthquake, wildfire, extreme weather events</i>)	22%	3 (25%)	↓
6	Energy crisis (e.g. <i>supply shortage/outage, price fluctuations</i>)	15%	NEW	↑
6	Macroeconomic developments (e.g. <i>inflation, deflation, monetary policies, austerity programs</i>)	15%	NEW	↑
8	New technologies (e.g. <i>risk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, connected/autonomous vehicles, electric vehicles, nanotechnology, blockchain, 5G</i>)	14%	4 (22%)	↓
9	Changes in legislation and regulation (e.g. <i>trade wars and tariffs, economic sanctions, protectionism, Euro-zone disintegration</i>)	12%	5 (19%)	↓
10	Market developments (e.g. <i>intensified competition/new entrants, M&A, market stagnation, market fluctuation</i>)	10%	8 (17%)	↓

(Source: Allianz Global Corporate & Specialty, "Allianz Risk Barometer 2023")

01 손해보상

[實損보상의 원칙]

Indemnity

- In(not) + demn(hurt) → “害입은 것을 없앰”
- 보험계약자를 손해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이득이나 수익이 없을 것
→ 보험자 대위(subrogation)의 근거
- 원칙의 예외
→ 기평가보험, 공제금액 설정 등



01 손해보상

[보상 vs 배상]

구분	손해보상	손해배상
의무자	보험자	불법행위자 및 채무불이행자
근거	보험계약	법률(민법 등)
내용	적극적 손해(재산상의 실제손해) * 다른 손해는 특약으로만 보상	적극적 손해 + 소극적 손해(일실이익 등) + 정신적 손해(위자료 등)
기타	보험계약자/피보험자 등의 고의/중과실은 면책	의무자의 고의/중과실/경과실은 책임인정의 주관적 요건

01 계약

[“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(*pacta sunt servanda*).”]

Contract

- 계약 = **법적으로 강제되는** 당사자간의 약속이나 합의
(미국통합상법전(UCC) 제1조 제201항).
- **대가 관계** (consideration, 約因)
 - * 약속자(promisor)에 대한 이익(benefit) 또는 수약자(promisee)에 대한 불이익(detiment)
 - * 계약에 법적강제성(enforcement)를 부여하는 요소
 - * 영미계약법의 고유한 개념 (sth given in consideration for a promise)



01 보험계약의 성립

[절차와 의무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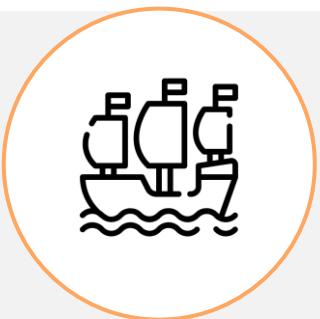
-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**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**로부터 개시된다(상656조).
-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**지체없이**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(상640조).

01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

[보험증권 = 법률적 문서]



01 해상보험계약의 특징



역사성



국제성



기업성

보험제도의 元祖

→ 보수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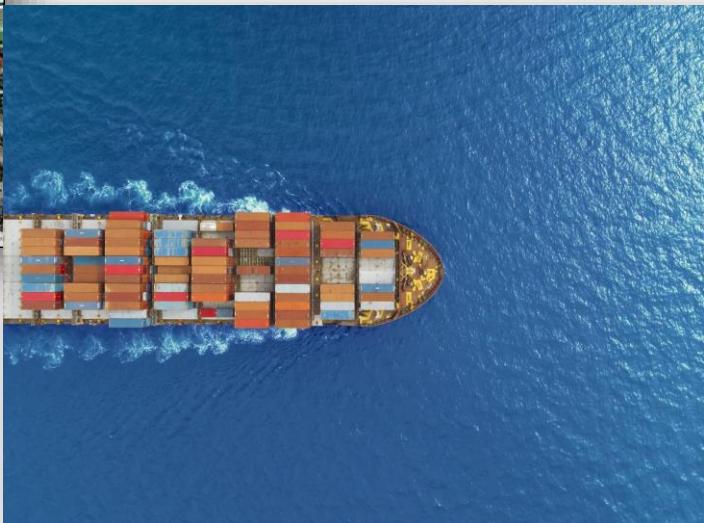
국제무역의 요소

→ 영국준거법

전문상인간 거래

→ 계약자유의 원칙

01 해상보험계약의 종류



01 해상보험계약의 종류





02

해상보험의 역사

- 보험의 원조
- 로이즈

제도화: 해사관습에서 입법까지



02 기원: 모험대차(冒險貸借)

[B.C. 18C]

Bottomry Respondentia

- 함무라비왕(BC1792-1750)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 법전
 - 선박과 화물을 담보물로 하는 소비대차 조항 포함
 - 선주나 화주는 항해가 무사히 종료되면 원금에 고율
(12%~20%)의 이자를 대주에게 상환하고 해난사고시 원리
금 상환 면제
- * 'premium'=모험대차이율-일반금리



(출처: <https://www.britannica.com/topic/Code-of-Hammurabi>)

02 기원: 공동해손(共同海損)

[B.C. 1C]

General Average

-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었던 에게해의 로도스섬의 해법에 포함(BC916)
- 항해단체가 해난을 당하여 공동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화물이나 선박 일부를 바다에 고의로 버리는 투하(jettison)를 해사관습으로 인정
- 로마 유스티아누스법전에 수록(AD529)



(출처: Lex Rhodia law office)

02 중세유럽

[14C]

Medieval Guild

- 11~12세기 덴마크 상인들이 해난사고시 구성원을 보상하는 Guild 구성
- 1347년 최초의 해상보험증권: 'Santa Clara'호
- 1384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보험 문서: Pisa에서 Savona 까지 직물 운송관련



02 영국의 초기 해상보험제도

[16~17C]

England

- 16세기에 북이탈리아의 룸바르드 상인들이 영국으로 이주하여 은행과 보험의 개념 도입
- 1601 Francis Bacon : 상인들간에 사용되는 보험증권에 관한 법률 (An Act touching Policies of Assurances used among Merchants) 초안
 - * 1681년 프랑스 '해상보험에 관한 법률' 성문화
- 1745 The Marine Insurance Act
- 1906 Marine Insurance Act



02 영국의 보험제도 발전

[18~19C]

Lloyd's of London

- 1688 Edward Lloyd's의 커피하우스에 관한 기록
- 1730년대까지 개인이 인수하는 해상보험 거래소 역할
*18C~19C초까지 법인에 의한 해상보험인수는 2개사만 독점 허용
- 1771 The Society of Lloyd's 구성
- 1871 Lloyd's Act 통해 법인화

* 18C 후반 로이즈 해상보험료 수입의 30-40%는 대서양 노예무역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→ 최근 로이즈는 이러한 역사적 과오에 대한 유감표명 (2020) (<https://youtu.be/-8XUU9TVyrl>)



(출처: <http://www.levantineheritage.com/coffee-culture.html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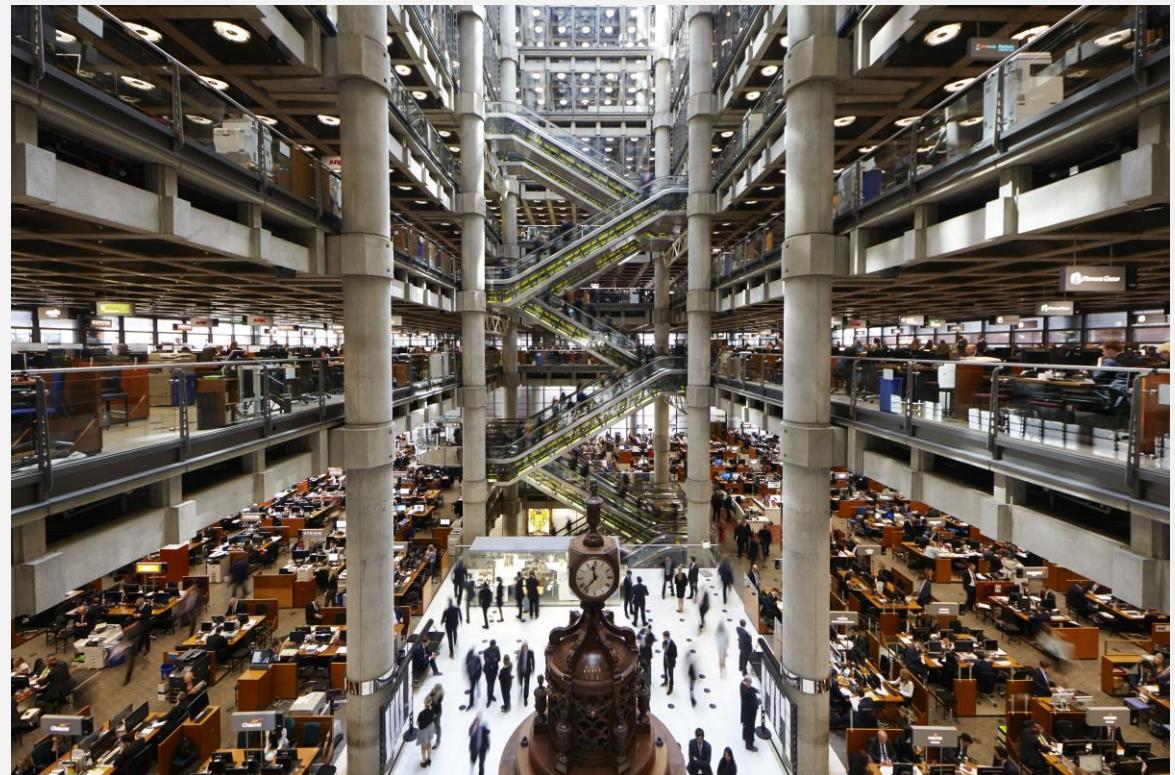
02 영국의 보험시장

[20C 이후]

Lloyd's of London

- 1904 자동차보험인수
- 1911 항공보험인수
- 1912 Titanic호 침몰사고보상
- 1965 위성보험인수
- 2001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고 보상

- 2022년 수입보험료 GBP46.7bn
 *약74.7조원, 전년비 4% ↑



(출처: <https://assets.lloyds.com/assets/jpg-lloyds-buildling-landscape/1/jpg-lloyds-buildling-landscape.JPG>)

02 영국의 보험시장 – IUA of London

[20C 이후]

Company Market

- 로이즈 이외 런던보험시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보험회사들의 단체
 - * 정회원 : AIG UK 외 70개사
 - * 준회원에 삼성화재 유럽법인, 코리안리 포함
- 2022년 수입보험료 GBP35.6bn
 - * 약57.6조원, 전년비 18.2% ↑



02 우리나라 손해보험사 및 해상보험 역사

- 1922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(메리츠화재 전신)
- 1952 한국안보화재해상보험 (삼성화재 전신)
- 1953 대한해상운송보험공동사무소 – 해상보험 pool
- 1955 동방해상보험(주) – 해상보험 전업사 (현대해상 전신)
- 1959 범한해상보험(주) – 해상보험 전업사 (KB손보 전신)
- 1967 한국해상보험공동사무소 – 해상보험 창구단일화
- 1968 각사 인수 체제로 전환
- 2022년 현재 원수보험사로는 국내사 11개사, 외자계 2개사가 해상보험계약 인수

H 현대해상

DB손해보험

삼성화재

MERITZ 메리츠화재

KB손해보험

※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(보험업법 제8조 제1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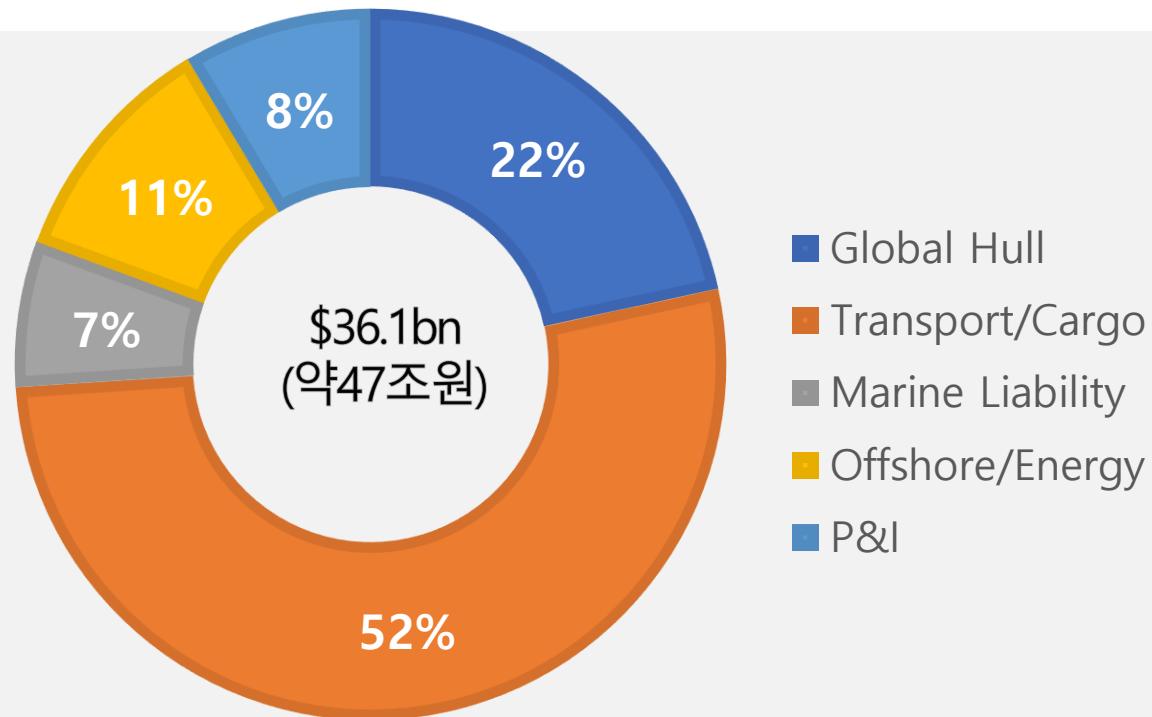
03

해상보험의 현황

- 글로벌 해상보험의 현황 및 이슈
- 우리나라 해상보험

03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(20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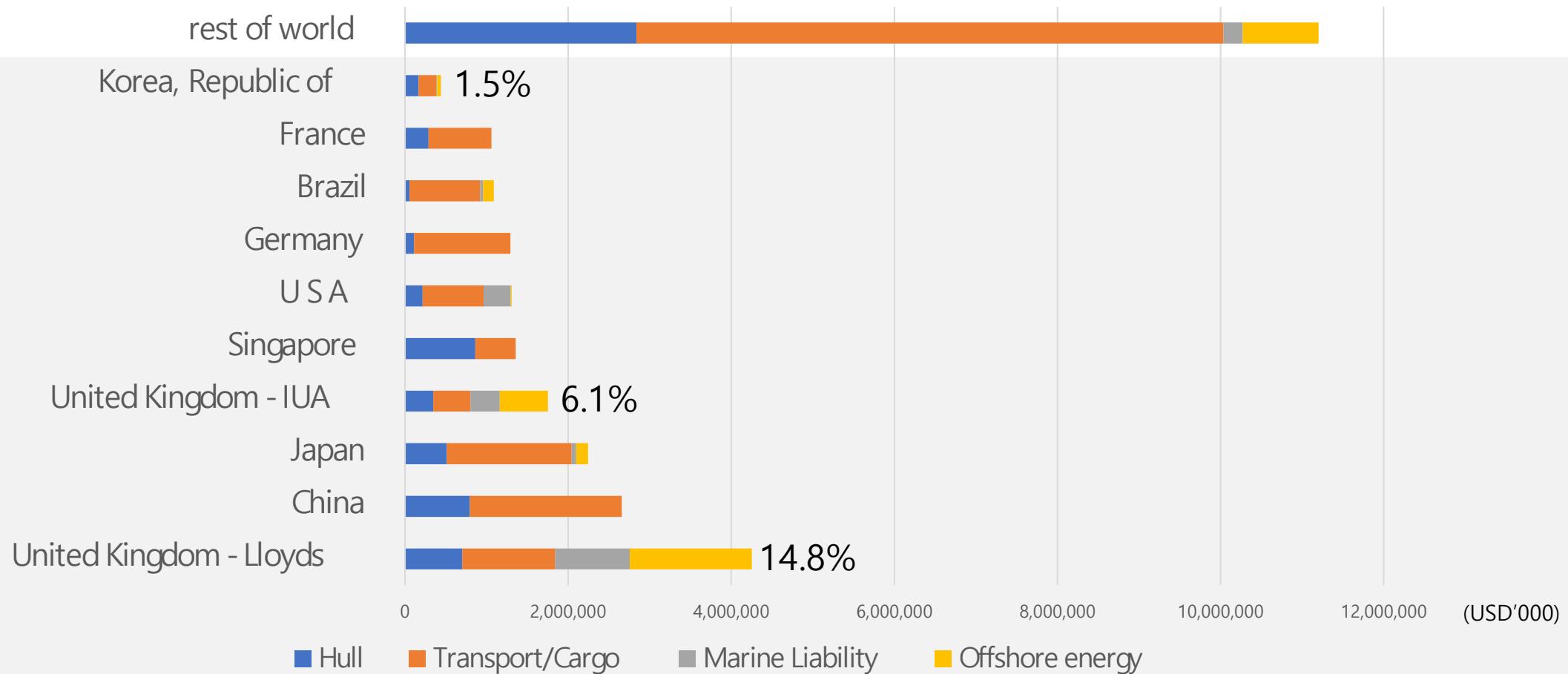
[전년비 수입보험료 6.7% 증가(적하 8.0% ↑, 선박 4.1% ↑)]



(* Source : IUMI, 'Global Marine Insurance Report 2022')

03 국가별 해상보험료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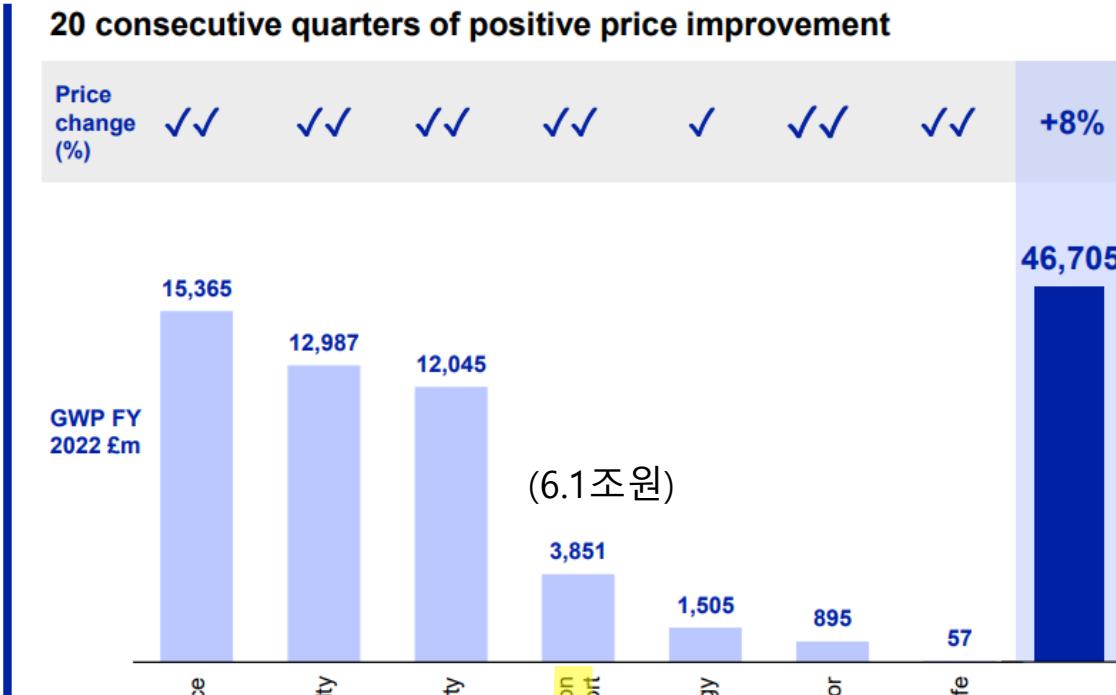
[영국 20.9%, 한국 1.5%]



(* Source : IUMI, 'Global Marine Insurance Report 2021')

03 로이즈 시장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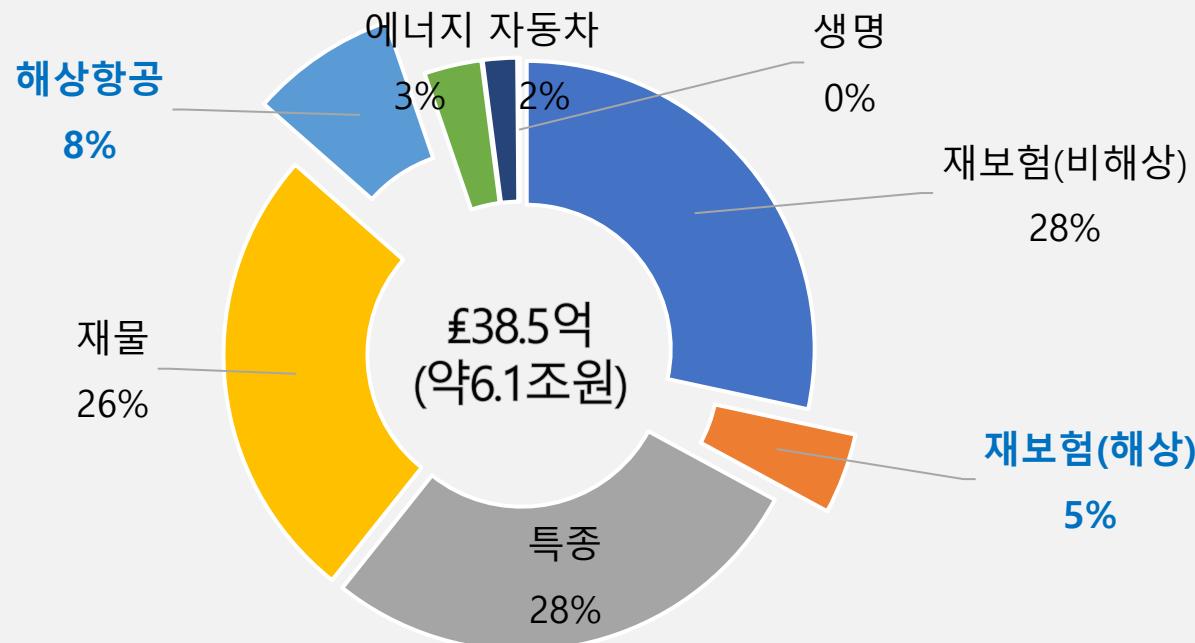
[전년비 수입보험료 19% 성장 (요율 8% ↑)]



(* Source : Lloyd's of London, 'Annual Report 2022')

03 로이즈 시장 - 보험종목별 보험료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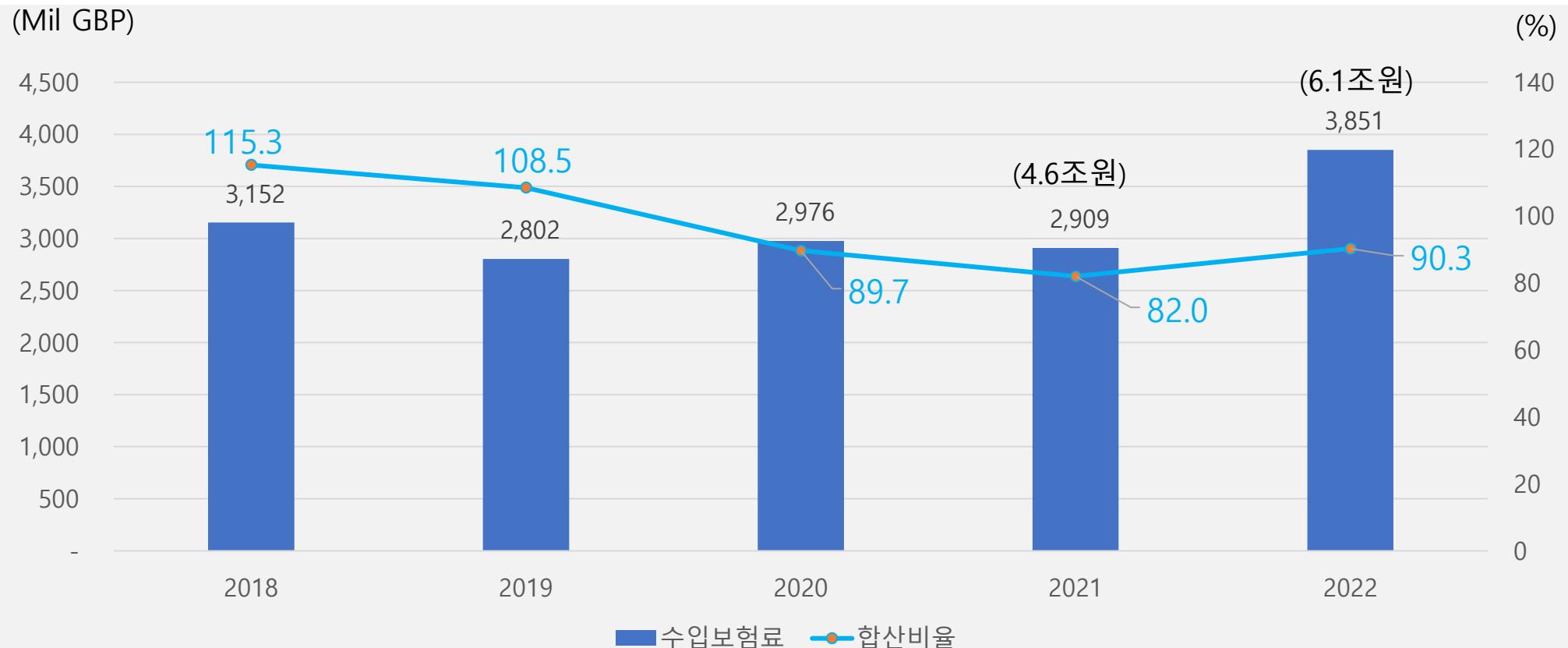
[해상항공보험 : 13% (원수보험 8% + 再보험5%)]



(* Source : Lloyd's of London, 'Annual Report 2022'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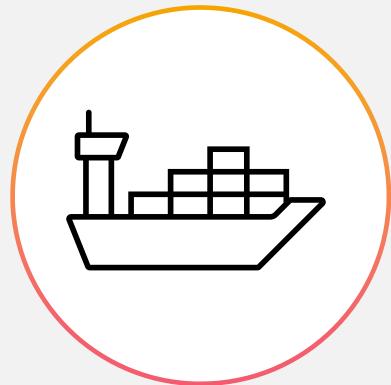
03 로이즈 시장 – 해상항공보험 연도별 실적/손익

[전년비 매출증가(32.4%↑), 합산비율 상승(8.3%p↑)]



(* Source : Lloyd's of London, 'Annual Report 2022'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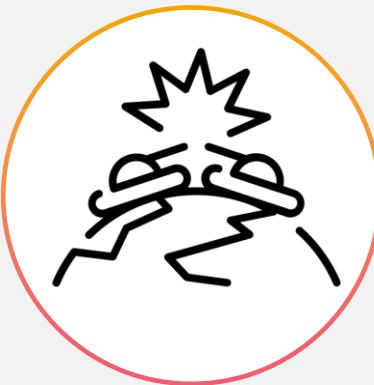
03 글로벌 해상보험업계의 이슈



선박대형화



ESG



전쟁



화재



Inflation

03 국제해상보험자연합(IUMI) 연차회의 주제



2020

Stockholm

"Navigating changing climates :
Delivering expertise to shape
the future"



2021

Seoul

"Pathways to sustainable,
resilient and innovative
future"



2022

Chicago

"Adapting to a world in
transition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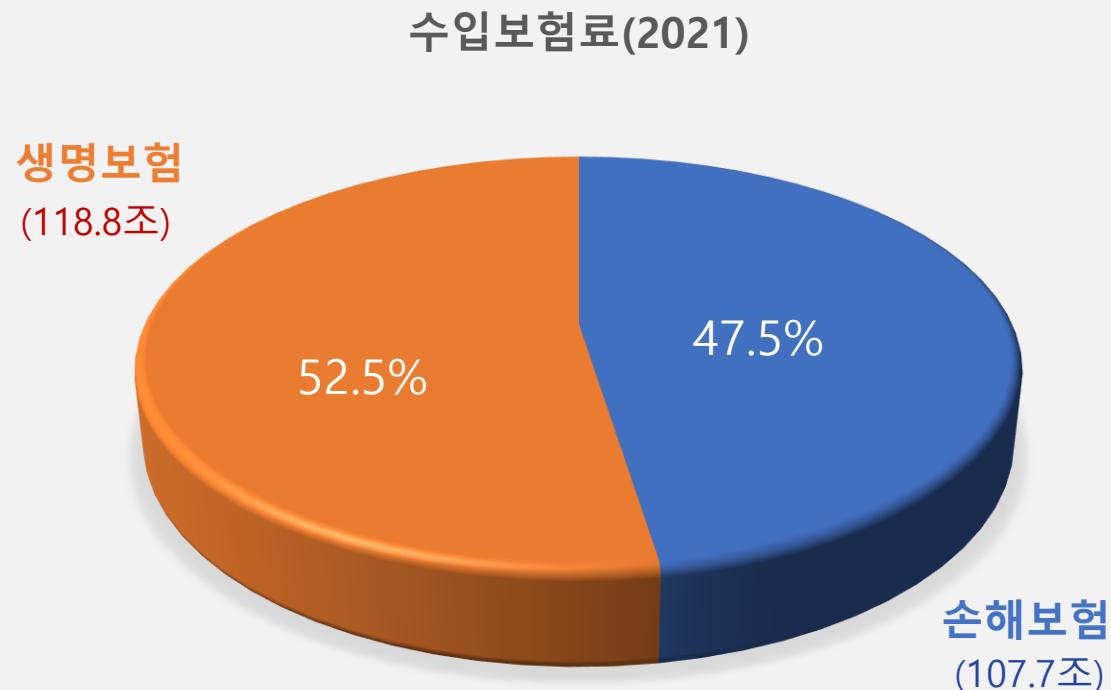
2023

Edinburgh

"Strength and stability in
turbulent seas"

03 우리나라 보험시장 규모

[총226조원 : 생명보험 52.5%, 손해보험 47.5%]



(* 출처: 보험개발원 : 2021년도 보험통계연감, p.22-23)

03 우리나라 보험시장 추이

[생명보험 : 보장성보험의 성장세 둔화, 저축성보험 역성장]

[손해보험 : 장기 보장성보험과 일반보험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]

*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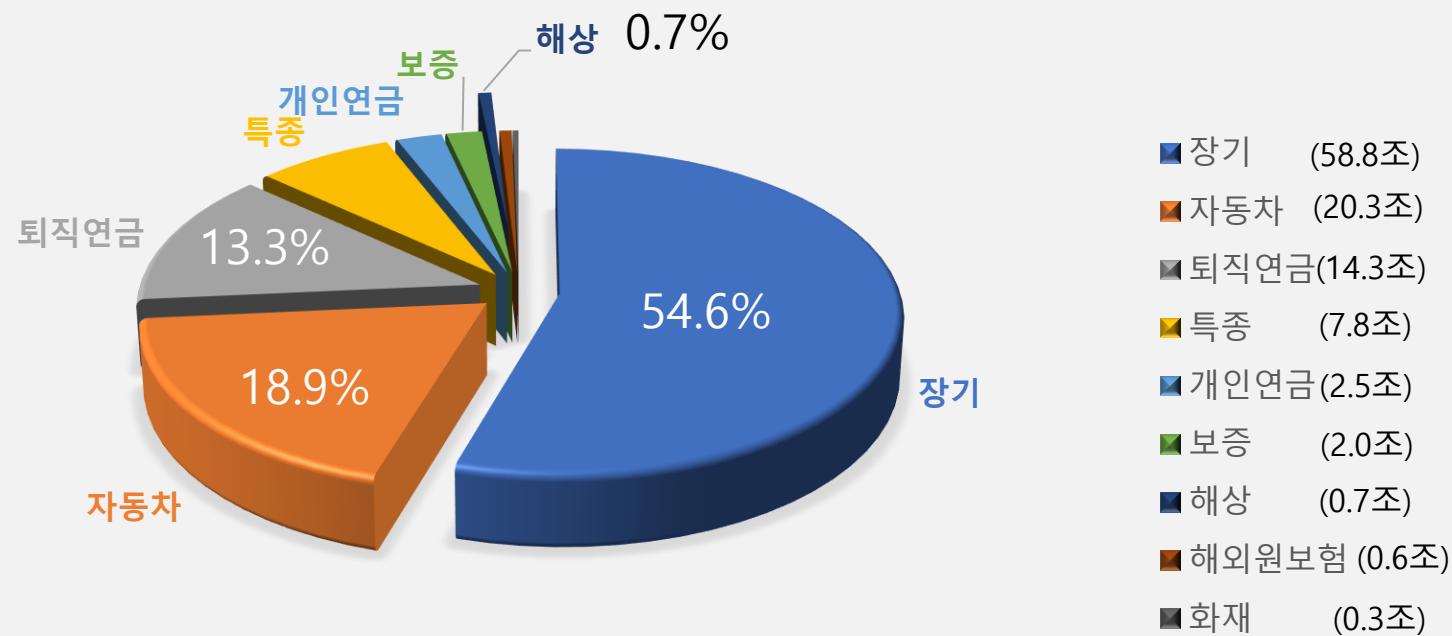
	'21 1/4	2/4	3/4	4/4	'22 1/4	2/4
보장성	3.2	2.5	-7.3	1.2	1.9	2.7
저축	-0.1	1.1	-29.3	-32.7	-31.6	-28.2
연금	12.7	-1.8	-4.7	-4.2	-9.8	-1.9
변액	15.2	6.3	-0.3	-4.1	-28.1	-24.6

*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(%)

	'21 1/4	2/4	3/4	4/4	'22 1/4	2/4
장기(보장성)	6.0	6.7	6.8	6.6	6.5	6.2
장기(저축성)	-8.9	-17.7	-17.3	-22.6	-17.4	-24.4
자동차	6.3	3.8	1.4	3.7	3.0	3.0
일반	8.5	10.3	7.8	8.3	6.7	10.2

03 우리나라 손해보험시장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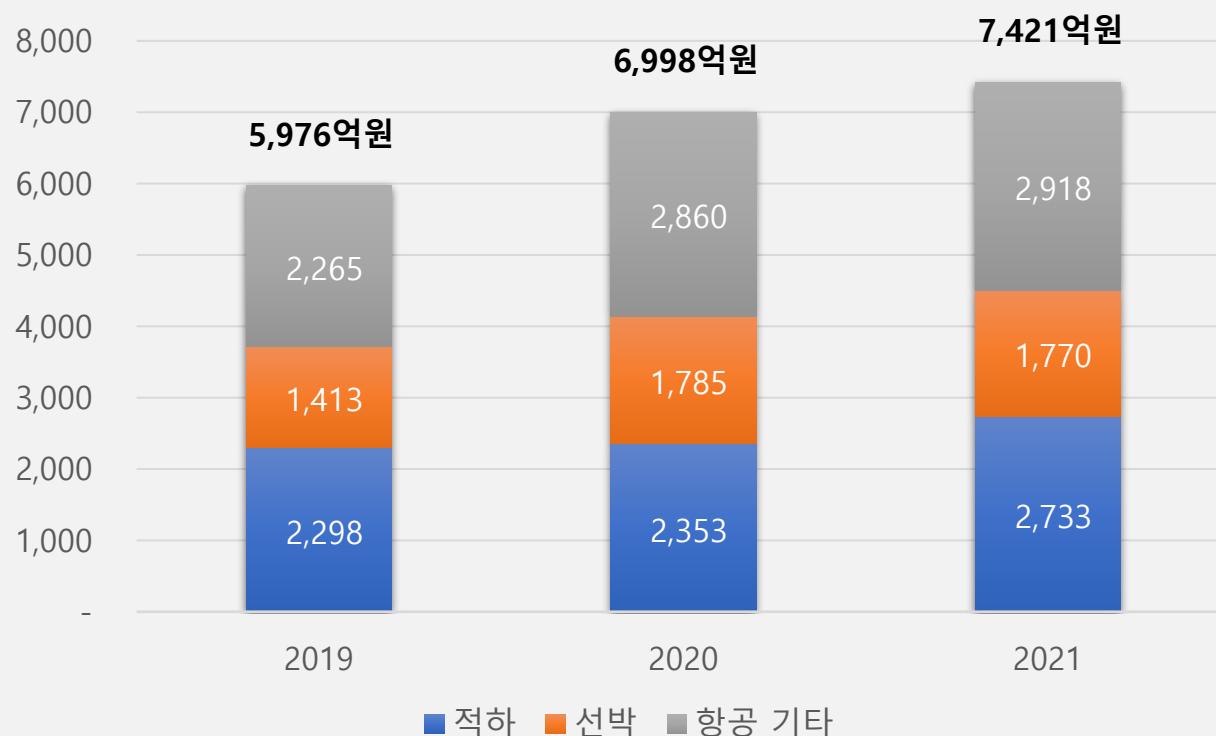
[장기 54.6%, 자동차 18.9%, 연금 15.7%, 일반보험(특종/해상/화재) 8.9%]



(* 출처: 보험개발원 : 2021년도 보험통계연감, p.319)

03 우리나라 해상보험시장 현황

[2021년 해상보험 수입보험료 7,421억원 : 적하 37%, 선박 24%]



(* 출처: 보험개발원 : 2022년 기업성보험 통계분석보고서)

03 우리나라 해상보험의 과제

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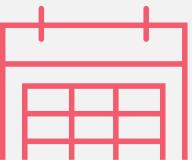
혁신성



- 이전에 없던 새로운 리스크 대응
- 선박대형화, 전기차 등 위험화물, 친환경연료추진기관, 사이버리스크, 자율운항선박

02

확장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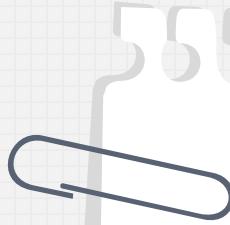
- 선체/P&I 의 전통적 영역 구분 모호
- 해상물류와 관련한 포괄적 배상책임 영역 보장 확대

03

전문성



- 해운조선산업에 고유한 리스크 이해 필요
- 글로벌 트렌드 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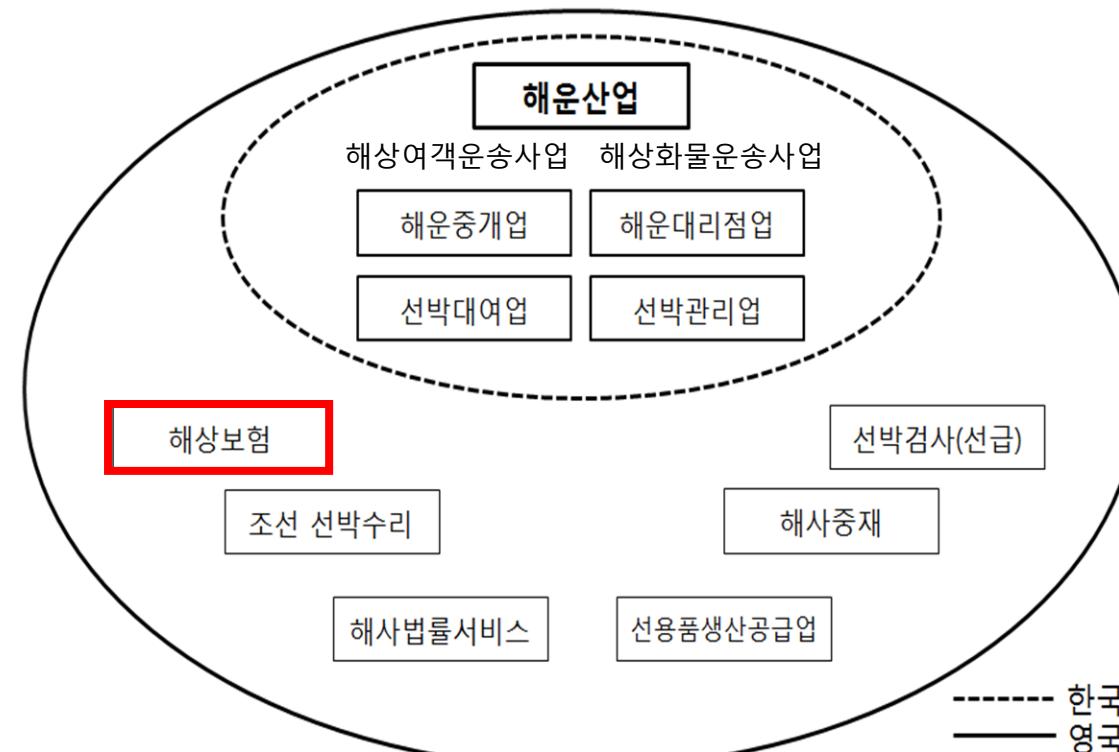


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!

오늘 발표 Key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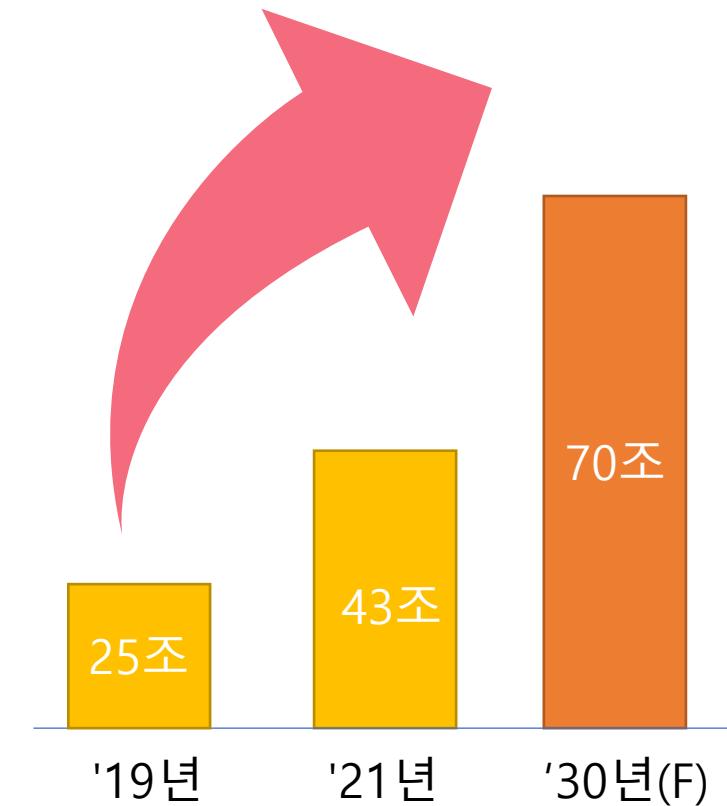
- ✓ 보험증권 = 법률문서
- ✓ Oldies but Goodies
- ✓ 해상보험의 역할과 과제

해운산업의 범위



(* 출처: 해양수산부, '제4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', 2016)

우리나라 해운산업매출액



(* 출처: 한국은행, '2019년/2021년 기업경영분석', 해양수산부 보도자료)

발표 관련 질문 받겠습니다

손들고 질문해 주세요!

발표 경청해 주셔서
감사합니다

권오정

oscarkwn@hotamil.com